미국 관세정책이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

요약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세계 각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 또는 부과를 예고하면서 관세 영향권에 놓인 국가와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시장 위축, 기존 공급망 붕괴 및 생산비용 증가가 우려되며,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응 방안 추진도 어려운 실정이다.

가전·스마트폰은 완제품의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매우 낮고, 미국이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 중인 품목이어서 관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LG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 공장의 증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46%의 높은 상호관세가 예고된 베트남의 생산 물량을 큰 폭으로 줄인 바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애플도 자사의 최대 생산 거점인 중국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인도, 브라질 등 관세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을 확대하려는 모습이다.

본고는 가전·스마트폰 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한다.[1] 미국의 수입 현황, 한국의 수출 현황, 글로벌 생산구조를 살펴보고 각 품목이 받는 영향을 살펴보았다.[2] 그리고 미국 관세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하였다.

1) 여기서 가전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4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2) TV·스마트폰은 글로벌 생산거점이 특정국에 집중된 반면,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은 생산거점이 여러 국가에 분포된 점을 고려하여 세부 목차를 구분하였다.

1. 서론

세계 각국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통상정책이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질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통상정책이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더욱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책 기조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관세 부과, 미국 우선주의하의 온쇼어링(Onshoring) 및 자국 제조업의 부활, 대중국 견제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관세정책의 경우,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담이 제품 가격에 전가된다면 미국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미국 시장 수요의 감소를 유발한다. 또한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글로벌 시장 수요와 무역의 위축,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별로 차등 부과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효율성과 복잡성으로 촘촘하게 형성된 제조업의 글로벌 분업체계를 교란시키고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에는 상호관세 25%가 예고되었고 한국의 주요 해외 생산거점 중 하나인 베트남은 46%의 높은 관세가 예고되었다.[3] 이로 인해 국내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미국 통상정책이 국내 가전·스마트폰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국내 가전·스마트폰의 품목별 현황과 무역구조를 살펴보고 미국의 관세정책이 우리나라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한국의 가전·스마트폰 주요 기업은 일찍부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소재부품 조달과 최적의 생산을 위해 해외공장을 설립하였고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등 여러 지역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다.

2. 미국의 수입 현황과 관세정책 동향

(1) 미국, 만성적인 가전·스마트폰 무역 적자국

미국 시장은 TV, 냉장고 등 주요 가전과 스마트폰의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은 구조이다. 미국은 거대한 소비시장이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한 자체 공급 규모 부족 또는 공급 불가로 매년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미국 또는 일부 글로벌 기업이 세탁기, 냉장고 등의 생활가전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만 수요에 비해 규모가 매우 적으며, 스마트폰과 TV는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가전·스마트폰 산업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

2024년 미국의 주요 가전 품목은 모두 큰 폭의

〈표 1〉 미국의 주요 가전 품목별 수입 현황(2024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구분	스마트폰			
		수입		무역수지	
		금액	전년비 증감률	금액	전년비 증감률
-	총계	50,948	-13.8	-41,377	-17.0
1	중국	41,312	-7.7	-41,032	-7.8
2	인도	6,920	40.2	-6,918	40.2
3	베트남	2,168	-72.8	-1,546	-78.7
상위 3개국 (비중)		50,400 (98.9%)	-12.6	-49,497	-12.7

순위	국가 구분	TV			
		수입		무역수지	
		금액	전년비 증감률	금액	전년비 증감률
-	총계	11,695	-0.7	-11,096	-0.1
1	멕시코	8,946	-2.3	-8,596	-1.9
2	베트남	1,215	10.1	-1,215	10.1
3	중국	1,144	0.1	-1,142	0.0
4	태국	210	-22.9	-210	-22.9
5	대만	146	118.7	-145	122.1
상위 5개국 (비중)		11,660 (99.7%)	-0.7	-11,309	-0.4

순위	국가 구분	냉장고			
		수입		무역수지	
		금액	전년비 증감률	금액	전년비 증감률
-	총계	7,369	-2.4	-7,104	-2.1
1	멕시코	3,630	-11.9	-3,590	-12.1
2	한국	1,615	-15.4	-1,613	-15.4
3	중국	1,052	27.1	-1,051	27.2
4	태국	609	47.5	-608	47.7
5	튀르키예	248	84.4	-247	85.5
상위 5개국 (비중)		7,153 (97.1%)	-3.4	-7,108	-3.4

순위	국가 구분	세탁기			
		수입		무역수지	
		금액	전년비 증감률	금액	전년비 증감률
-	총계	1,976	4.3	-1,594	5.9
1	멕시코	430	5.5	-389	1.7
2	중국	470	1.7	-468	1.7
3	태국	332	2.8	-330	2.4
4	한국	313	11.7	-312	11.9
5	베트남	270	-4.4	-269	-4.4
상위 5개국 (비중)		1,814 (91.8%)	3.4	-1,769	2.5

순위	국가 구분	에어컨(가정용·소형)			
		수입		무역수지	
		금액	전년비 증감률	금액	전년비 증감률
-	총계	1,295	14.0	-1,102	14.9
1	중국	562	-16.1	-560	-16.2
2	태국	480	53.5	-480	53.6
3	멕시코	86	41.6	-61	53.4
4	인도네시아	60	114.5	-60	114.7
5	한국	42	1,088.1	-38	1,105.1
상위 5개국 (비중)		1,230 (94.9%)	14.4	-1,199	14.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참조하여 산업연구원 작성.
주: 각 품목의 완제품에 해당하는 HS 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함.[4)]

무역 적자 상태이다. 스마트폰 수입 규모는 510억 달러에 달하며, 무역수지는 414억 달러 적자이다. TV는 111억 달러, 냉장고 71억 달러, 세탁기 16억 달러, 에어컨 11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수입국별로 보면 미국의 스마트폰은 애플의 위탁 생산지인 중국과 인도, 그리고 한국 삼성전자의 주요 생산지인 인도, 베트남에서 대부분이 수입된다. TV·냉장고·세탁기의 최대 수입국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의 주요 생산지인 멕시코이며 중국, 태국, 한국도 주요 수입국이다. 이처럼 미국의 가전·스마트폰은 상당한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현실화가 우려된다.

(2) 미국 신정부의 최근 관세정책 동향

미국 신정부의 주요 관세 부과 사항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첫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멕시코는 한국기업의 주요 생산거점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컸다. 직후인 2월 3일에 30일간 유예 조치가 발표되었고 현재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대상 품목은 추가 관세가 면제된 상태이다.

이후 철강·알루미늄(2월 11일 발효), 자동차(4월 3일 발효) 대상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었고, 4월 5일부터는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가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상호관세는 4월 9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다음 날인 4월 10일 90일간 유예가 발표되었다.

가전·스마트폰 주요 생산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한국 25%,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인도네시아 32%, 인도 26%, 일본 24%, EU 20%, 브라질 10% 등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 조건을 만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도 면제받았다.[5]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는 최대 145%까지 급등했으나, 5월 10~11일 제네바 협상 이후 30%로 하향 조정되었다.[6]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었다.

5월 21일 현재 미국은 국가별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인 7월 9일까지 국가별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며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상호관세가 예정되어 있고, 베트남 등 해외 생산거점에 대한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편 미국이 가전·스마트폰의 주요 생산국에 부과한 기존 관세는 0~3.9%로 매우 낮은데,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스마트폰은 0%로 다른 국가와 동일한 반면, 냉장고·에어컨은 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 부과된 추가 관세를 합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냉장고에는 55%의 고관세가 부과된다.

4) 각 품목의 HS 코드(6단위)는 스마트폰(851713), TV(852872), 냉장고(841810, 841821), 세탁기(845011, 845012, 845019, 845020), 에어컨(841510)임.

5) 가전제품은 USMCA 면제 대상 품목이다.

6) 펜타닐 관련으로 부과된 20%와 보편관세 10%가 합산된 것이다.

〈표 2〉 미국의 가전·스마트폰 관련 관세정책

	주요 내용
보편관세	· 기본관세 10% 추가(발효 중) * 스마트폰은 특정품목 관세 유예로 부과 대상에서 제외
상호관세	· 국가별 차등 부과 예고(7월 9일까지 90일 유예), 국가별 협상 중 * 한국 25%,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인도네시아 32%, 인도 26%, 일본 24%, EU 20%, 브라질 10% 등 * 멕시코·캐나다는 USMCA 대상 품목에 한해 부과 대상에서 제외
특정국 관세	· 멕시코·캐나다 25% 추가(발효 중) * USMCA 협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전·스마트폰은 관세 면제 · 중국 20% 추가(발효 중): 펜타닐 관련 관세 * 기존 관세율: 스마트폰 0%, TV 11.4%, 냉장고 25%, 세탁기 8.5~8.9%, 에어컨 25% * 중국을 제외한 주요 생산국 대부분의 기존 관세율은 0~3.9% 수준
특정품목 관세	·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제품'은 보편관세·상호관세 유예(높은 불확실성)[7]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예시 (현재 발효 중인 항목만 적용)	· 중국산 냉장고·에어컨: (기존) 25 → (현재) 55% · 중국산 세탁기: (기존) 8.5~8.9 → (현재) 38.5~38.9% · 중국산 스마트폰: (기존) 0 → (현재) 20% · 중국산 TV: (기존) 11.4 → (현재) 41.4%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주: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예시에서 현재는 2025년 5월 21일 기준임.

3. 주요 품목별 현황과 관세 영향

한국 가전산업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대형가전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 대형가전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중국과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익이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마트폰은 미국 애플(Apple)과 세계 1~2위 경쟁 중이나, 애플이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우위를 유지하면서 매출과 수익은 모두 미국이 1위이다. 또한 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 등 여러 중국기업의 추격으로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다.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측면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이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공장을 운영한다. 한국의 스마트폰은 베트남·인도, TV는 멕시코·베트남·동유럽, 냉장고와 세탁기는 인도·중국·태국·멕시코·동유럽 등에서 주로 생산한다. 스마트폰과 같은 고가 제품은 항공기를 이용한 수출이 가능해 생산국이 소수인 반면, 냉장고·세탁기 등 무겁고 큰 대형 생활가전은 수요시장에 인접한 여러 국가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은 수요 감소와 한국기업의 점유율 변화로 요약된다. 관세 부과에 따른

7)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3일 자신의 SNS에 미국 외에서 제조된 모든 스마트폰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부과 시기와 현실화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표 3〉 스마트폰·TV 품목의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구분		2022	2023	2024(잠정치)	연평균 증감률
휴대단말기 (스마트폰 등)	완제품	4,138	3,046	3,348	-10.0
	부품	9,586	9,752	11,078	7.5
TV	완제품	67	49	32	-31.1
	부품	630	489	622	-0.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수출입통계.

제품 가격 상승이 미국 시장 위축을 유발하고,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요처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점유율 영향은 품목별 주요 생산국이 관세를 얼마나 부과받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기업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검토하거나[8],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미국향 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 예고된 상호관세가 그대로 부과된다면 관세율이 낮은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생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최근 LG전자는 높은 상호관세가 예고된 베트남의 생산 물량을 줄였고, 미국 애플은 중국에 부과된 고관세를 피해 인도에서의 생산을 늘린 바 있다.

(1) 스마트폰·TV

1) 한국의 수출 현황

스마트폰과 TV는 신제품 출시 주기가 짧으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대표적인 개인 소비자용 전자제품이다.[9] 한국의 경우 주요 기업의 해외 생산이 보편화되어 국내 생산 비중이 매우 적고, 이로 인해 기업의 매출액에 비해 수출액이 적다.[10] 또한 해외 생산 확대 또는 국내공장의 해외 이전이 최근까지도 진행되면서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내 완제품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해외 국내공장의 수요가 더해지면서 현재는 완제품에 비해 부품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다.

휴대단말기(대부분 스마트폰) 완제품 수출액은 2024년 33억 달러에 불과하며, 2022년 이후 연평균 10.0% 감소하였다. TV 수출액도 2024년 3,20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고, 국내공장의 해외 이전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 연평균 31.1% 감소했다. 반면 휴대단말기 부품 수출액은 2024년 111억 달러로 완제품 수출 규모를 크게 상회하였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모듈 수출 호조로 최근까지 증가세를 기록했다.

2) 글로벌 생산구조

스마트폰과 TV는 고가의 전자제품으로 제품 가격에서 해외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

8) 일례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미국 최대의 생활가전 제조기업 월풀, GE(중국 하이얼의 자회사)는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9) TV는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가 10년 이상 세계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TCL, 하이센스, 샤오미 등이 주요 경쟁기업으로 부상했고 일본 소니는 OLED TV에서만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다.

10) ICT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 가전산업(영상음향기기+가정용 전기기기+휴대단말기) 총수출액은 219억 달러(약 29조 8,000억 원, 잠정치) 규모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024년 관련 사업부 매출(잠정치)은 234조 원에 달한다.

〈표 4〉 주요 기업의 지역별 생산량(2023년): 스마트폰·TV

단위: 천 대, (%)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미국	멕시코	브라질	동유럽
한국 기업	스마트폰	6,000	0	80,000	8,000	0	0	58,000	0	0	5,000	3,000
	TV	100	0	5,300	4,600	0	0	1,800	0	20,000	1,700	15,800
전체	스마트폰 (비중)	6,000 (0.6)	569,000 (52.7)	151,000 (14.0)	13,000 (1.2)	0 (0.0)	2,000 (0.2)	264,000 (24.4)	0 (0.0)	0 (0.0)	10,000 (0.9)	5,000 (0.5)
	TV (비중)	100 (0.0)	118,600 (58.0)	6,300 (3.1)	8,870 (4.3)	6,090 (3.0)	400 (0.2)	5,200 (2.5)	0 (0.0)	28,000 (13.7)	1,700 (0.8)	22,500 (11.0)

자료: 후지키메라연구소(2024).

주: 1) 주요 브랜드 기업이 각 국가에서 생산하는 물량(위탁생산 제외).

2) 위의 합산 수치가 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스마트폰 94.4%, TV 96.7%임.

이고,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가전과 달리 현지 수요를 반영한 제품생산 수요가 적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한국 주요 기업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소수의 국가에서 제품 대부분을 생산하고 이를 전 세계로 판매한다.

전체 기준으로는 미국의 애플과 중국기업이 제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중국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 이어서 스마트폰은 인도와 베트남이 주요 생산 지역이고, TV는 멕시코, 동유럽(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등), 인도네시아가 주요 생산 지역이다.

3)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

스마트폰과 TV는 완제품의 국내 생산 비중이 매우 낮고 미국 내 생산이 어려워 미국의 관세 부과가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상호관세의 부과 수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 공급망의 변경 가능성이 높고 수요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스마트폰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유예 상태이며, 주요 생산국인 베트남, 중국,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율도 불확실하다. 만약 예고된 상호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들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는 중국 54%, 베트남 46%, 인도 26%가 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은 인도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가 없는 미국 생산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스마트폰 생산 여건이 주요 생산국에 비해 매우 취약해 미국 공장 신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경우 대중국 관세가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한국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으나, 관세율의 차이가 적고 미국 애플 스마트폰의 수익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익은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스마트폰 수요 감소와 가격 경쟁 심화로 단기적으로 매출과 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높다.

TV는 전 세계 생산의 58.0%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반면, 한국기업은 멕시코·동유럽에서 대부분을 생산하기

〈표 5〉 냉장고·세탁기·에어컨 품목의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품목 구분		2022	2023	2024(잠정치)	연평균 증감률
냉장고	완제품	2,077	2,314	1,974	-2.5
	부품	334	299	286	-7.6
세탁기	완제품	515	492	550	3.3
에어컨	완제품	501	478	430	-7.4
가정용 회전기기 (세탁기·에어컨 등)	부품	242	288	270	5.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수출입통계.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경쟁기업 대비 유리한 입장이다. TV도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미국 생산이 매우 어려우므로, 현재 발표된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한국은 미국에서 최대 경쟁자인 중국기업과 점유율 격차를 벌릴 기회를 얻을 것이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과 경쟁이 더욱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 냉장고·세탁기·에어컨

1) 한국의 수출 현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대표적인 대형 생활가전 제품이며, 한국은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비용 절감 및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생산 확대로 수출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냉장고는 생활가전 제품 중 국내 생산 및 수출 규모가 가장 크지만 해외 생산이 거의 90%에 달하여 2024년 수출액은 20억 달러 규모에 그친다. 2024년에는 하반기 수요 부진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해외 생산 확대로 완제품과 부품 수출 모두 전년비 감소했다.

세탁기와 에어컨의 2024년 수출액은 각각 5억 5,000만 달러, 4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세탁기는 고가의 신제품인 '일체형 세탁건조기' 생산이 증가한 영향으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에어컨은 지난 3년간 연평균 7.4%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한국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부품 수출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2) 글로벌 생산구조

생활가전은 앞서 살펴본 스마트폰·TV에 비해 주요 생산국이 다양하며, 국내 생산 비중도 12~16%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국기업의 냉장고 주요 생산 지역은 인도, 멕시코, 동유럽,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한국 등이다. 인도 생산 물량이 비교적 많고 나머지는 비슷한 규모를 보인다. 전체 기준으로는 중국의 생산 비중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어서 인도, 태국, 멕시코 등의 순이다.

한국기업의 세탁기 주요 생산 지역은 중국, 태국, 인도, 미국, 동유럽, 한국 등이다. 중국, 태국,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이 비교적 큰 편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적지 않은 물량을 생산한다. 전체 기준으로는 중국이 53.6% 비중을 차지하며 태국, 인도,

〈표 6〉 주요 기업의 지역별 생산량(2023년):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단위: 천 대, (%)

품목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미국	멕시코	브라질	동유럽
한국 기업	냉장고	3,000	2,700	900	1,500	0	1,100	6,400	0	3,300	0	2,200
	세탁기	3,300	5,100	1,400	400	1,200	5,000	4,200	2,600	1,000	0	2,350
	에어컨	2,200	2,000	0	200	0	3,300	3,300	0	0	2,400	0
전체	냉장고 (비중)	3,000 (2.7)	68,400 (61.3)	2,800 (2.5)	3,950 (3.5)	0 (0.0)	6,250 (5.6)	9,500 (8.5)	400 (0.4)	6,100 (5.5)	1,650 (1.5)	4,000 (3.6)
	세탁기 (비중)	3,300 (2.8)	62,100 (53.6)	3,900 (3.4)	1,850 (1.6)	1,350 (1.2)	8,100 (7.0)	8,100 (7.0)	6,600 (5.7)	1,000 (0.9)	3,300 (2.8)	6,850 (5.9)
	에어컨 (비중)	2,200 (1.1)	151,850 (76.7)	900 (0.5)	700 (0.4)	3,800 (1.9)	14,150 (7.1)	9,500 (4.8)	2,400 (1.2)	1,400 (0.7)	2,550 (1.3)	950 (0.5)

자료: 후지키메라연구소(2024).

주: 1) 주요 브랜드 기업이 각 국가에서 생산하는 물량(위탁생산 제외).

2) 위의 합산 수치가 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냉장고 95.0%, 세탁기 91.9%, 에어컨 96.2%.

동유럽, 미국이 각각 6~7% 비중이다. 세탁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8년 전후로 한국 주요 기업이 미국 공장 운영을 시작하면서 미국 생산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에어컨 주요 생산 지역은 전체 기준 중국이 76.7%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며 태국과 인도가 각각 7.1%, 4.8% 비중이다. 반면 한국은 인도, 태국, 브라질, 한국, 중국 등에서 고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생산거점으로 인해 미국의 관세정책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은 스마트폰·TV와 달리 일부 제품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고율의 관세 부과에 따라 미국 공장 신·증설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된다. 또한 예고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에서의 생산 확대가 예측된다. 이에 따른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 부과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과 교체 주기 연장으로 미국 수요가 감소하고,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 중심의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 둘째, 가장 낮은 관세율이 예고된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의 생산이 더욱 확대되고 한국, 중국, 베트남 등의 생산이 감소한다. 한국에도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 생산 물량도 멕시코 등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내 생산과 수출에 부정적이다. 셋째,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 생산 비중이 높은 월풀, GE의 미국 점유율이 상승한다. 특히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냉장고, 에어컨 품목에서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이다. 넷째, 중국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미국에서 한국산 또는 한국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다. 이는 미국에서 한국기업의 점유율 증가 및 수익성 개선 효과를 가져온다.[11] 다섯째, 중국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어려움이 커지면서 유럽, 동남아, 중동 등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심화된다. 이는 한국기업의 수익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여섯째, 완제품 기업의 주요 생산국이 변화함에 따라 글로벌 조달처, 판매처 등 공급망이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11)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시에도 중국은 34%, 한국은 25% 한국산 제품이 유리하나, 이 경우에는 상호관세가 낮은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물량이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 점유율 측면의 유익은 유지되지만 국내 생산과 수출에 대한 유익은 거의 사라진다.

4.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앞서 살펴본 미국 관세정책의 가전, 스마트폰 산업에 대한 영향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관세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높으나, 이하는 상호관세 등 현재(5월 21일)까지 예고된 관세가 그대로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분석하였다.

공통적인 영향은 최소 10% 이상의 관세 부과로 한국기업의 최대 수요처인 미국 시장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주요 생산지역이 관세율이 낮은 국가에 집중되면서 공급망이 재편되고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추가로 54%(상호관세 포함)의 고관세를 부과받음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한다. 반면 중국기업이 미국 대신 유럽, 아시아, 중동 등으로 진출을 확대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중국과 경쟁 심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TV·스마트폰은 미국이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 내 생산도 매우 어려워 부정적 요인이 낮다. 스마트폰은 한국과 미국 모두 인도를 주요 생산 지역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고, 주요 경쟁기업이 비슷한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미국 시장의 경쟁 구도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TV는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품목의 경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국 내 생산 확대가 검토되고 있으며, 미국 또는 낮은 관세율인 중남미 지역에서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생산 물량도 이전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내 생산과 수출에 부정적 요인이다. 미국 생산 기반이 풍부한 월풀, GE는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가격경쟁력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한국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반대로 세계 최대의 생산국인

〈표 7〉 미국 관세정책의 가전·스마트폰 산업 영향

		주요 내용
공통 영향		· 관세 부과 → 물가 상승·경기 위축 → 미국 수요 감소 → 미국향 비중 높은 기업의 실적 악화 · 주요 생산국이 저관세율 국가로 이동 → 생산비용 증가, 대응 어려운 소재·부품 공급 중소중견기업의 실적 악화 · 대중국 고관세 부과 →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 → 미국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개선 · 대중국 고관세 부과 → 중국기업의 미국 외 시장 진출 확대 → 글로벌 경쟁 심화 → 미국 외 시장에서 부정적 영향
품목별 영향	스마트폰 TV	· 미국 현지 생산 매우 어려움 → 저관세율 국가에서 생산 증가 · (스마트폰) 관세 유예 중(높은 불확실성) → 기존 생산지인 베트남에서 인도로 생산 물량 이전 가능 → 경쟁사도 같은 상황으로 영향 미미 · (TV) 최대 생산지 멕시코가 관세 면제 → 중국산 대비 유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 관세 회피 방안 모색 → 미국 생산 확대, 관세가 낮은 중남미(멕시코, 브라질) 지역에서 생산 증가 → 국내 생산·수출에 부정적 · 미국 생산기업(월풀, GE) 경쟁력 상승 → 한국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에 부정적 · (냉장고) 미국 생산 확대(신설 검토), 중남미 생산 증가 → 국내 생산 감소 우려 · (세탁기) 미국 생산 확대(증설 검토) → 국내 생산 감소 우려 · (에어컨) 중남미 생산 증가 → 국내 생산 감소 우려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중국에 더욱 높은 관세가 추가된 점은 이미 전 세계적인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기업에 긍정적 영향 요인이다.

(2) 정책 시사점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높고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지를 옮길 경우에도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비록 명확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기업은 국내 유턴을 검토하거나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대상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으로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높은 상호관세가 예고된 동남아시아 지역에 해외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 수요가 예측되며, 이들 기업의 '유턴 정책' 활용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2025년 2월 '관세 피해 U-턴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 감면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12] 또한 이후에도 국내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외공장보다 높은 수준의 자동화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스마트공장 지원 정책과 연계한 유턴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글로벌 수요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실적 부진 우려를 해소하고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수진작 방안이 요청된다. 스마트·고효율 제품에 대한 구매보조금,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조건을 갖춘 스마트홈 솔루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방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실적 부진을 예방하고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12) 관계부처합동(2025),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2월 18일.

셋째, 가전·스마트폰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에 대응한 제품·서비스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며 차별화를 통해 경쟁 심화에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R&D 측면에서는 AI 제품 및 스마트홈 서비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및 핵심부품, 현지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디자인 등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AI를 적용한 신제품 및 신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청된다. 최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인공지능(AI) 기술의 범위에 가전, 스마트폰, 스마트홈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AI 기술을 포함하여 기업의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13] 그리고 AI 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데이터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련 기업의 AI 활용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제품-소프트웨어 융합인력 양성을 확대하여 기업이 보유한 기존 데이터 또는 수집 중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핵심 주제어: 미국 관세정책, 가전, 스마트폰, 산업 영향

13) 2025년 3월 14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이 포함되면서 AI 반도체, 자율주행, 의료 AI, 산업용 AI 등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확대되었다.



심우중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 전문연구원
swjkorea@kiet.re.kr / 044-287-3024
「주요 산업의 디지털 전환 유형별 특징과 시사점」(공저, 2025)
「CES 2025에서 나타난 주요 산업의 변화 방향과 시사점」(공저, 2025)



김종기
산업전환전략연구단 선임연구위원
jkkim@kiet.re.kr / 044-287-3106
「주요 산업의 디지털 전환 유형별 특징과 시사점」(공저, 2025)
「주요 산업의 한중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 조선, 석유화학, 통신기기」(공저, 2023)